금어기 중국어선 조업 막아라…목포해경 부릅 뜬 '감시'

EEZ 한달간 강력단속…적발땐 담보금 부과

중국 유자망 어선들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이 1월 한 달간 금지되지만 불법 중국 어선들의 조업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해경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사전 허가받은 중국 어선 1658척 중 유자망 673척에 대한 EEZ 우리측 구역에서의 조업이 이달 말까지 금지된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측 수역에서 조업하는 유자망 어선의 허가 어획량은 7672t에 이른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유자망 조업 허가 기간(8월 1일 낮 12시~12월 31일 낮 12시) 중 우리측 해역(海域)을 침범, 불법 조업에 나섰던 중국 유자망 어선 23척을 나포, 15억 675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2년 11척을 나포하고 2억 65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한 것에 비해 부쩍 늘어난 것이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경은 정부가 지난 2011년 내놓은 '불법조업 종합대책'에 따라 불법 조업하다 적발되는 중국 어선에 물린 벌금(담보금) 기준을 상향, 적용하면서 담보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특히 중국 유자망 어선의 금어기에도 불구, 쌍타망 어선의 조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허가받지 않고 우리측 해역을 침범, 촘촘한 어망을 사용해 무차별 포획에 나서는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감시의 눈을 떼지 않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금어기와 상관없이 국내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는 불법 중국 어선들이 적지 않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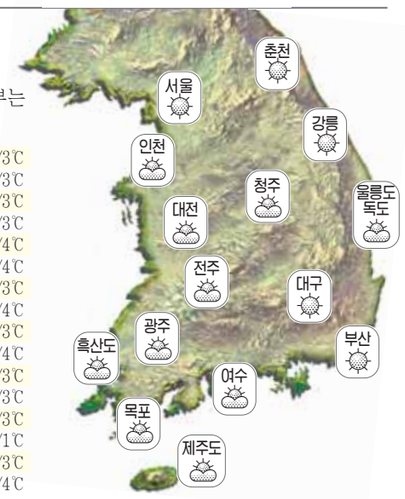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41분 해짐 17시 39분 | 달뜸 13시 16분 달짐 02시 18분

동장군 기승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 부는 곳 있겠다.

광 주	구름많음	-7/3℃
목 포	구름많음	-4/3℃
여 수	구름많음	-5/3℃
나 주	구름많음	-9/3℃
완 도	구름많음	-4/4℃
구 례	구름많음	-9/4℃
강 진	구름많음	-7/3℃
해 남	구름많음	-7/4℃
장 흥	구름많음	-8/3℃
순 천	구름많음	-5/4℃
영 광	구름많음	-9/3℃
진 도	구름많음	-3/3℃
전 주	구름많음	-8/3℃
군 산	구름많음	-9/1℃
남 원	구름많음	-11/3℃
흑산도	구름많음	-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5~2.5m

감기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매우높음	낮음	매우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북서~북	1.0~2.0m

	밀물	썰물
목포	09:29 21:35	01:59 14:51
여수	04:39 16:53	10:39 23:1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날 씨						
최저/최고	-4/5	-1/5	-4/3	-5/4	-4/4	-4/4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호 검사 탄생

성인욱씨…司試 3명 등 올 4명 합격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 검사가 나왔다. 또 전남대는 이를 포함해 올해 4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전남대는 9일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이래 최초로 3학년 성인욱〈사진〉씨가 합격한 것을 비롯해 법학과 출신의 사법연수원생 김수민(사법시험 52회)·박영수(53회)·최혜윤(53회)씨 등 4명이 2014년도 검사임용 선발전형에 최종합격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판사 격인 재판연구원(law clerk) 임용시험에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박건일·이용석·한지영(3학년)씨가 합격했다. 2011년 법조일원화와 함께 도입된 재판연구원은 법원에서 재판을 보조하는 역할로 판사 임용에 앞선 과정이다. 전남대는 법전원 1기를 배출한 2011년에 6명, 2012년에 3명, 2013년에 3명이 합격했다.

김정완 전남대 법전원 원장은 "변호사시험TF팀 운영, 검사임용대비반 운영 등 학생들의 진로와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이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원산지표시 잘 됐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들이 9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농관원은 오는 29일까지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 이력제, 양곡표시제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C학점' 저소득층 대학생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은 한 차례에 한해 성적이 C학점(100점 만점에 70점)이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올해 3월 1일 기준 만 20세 이하이고 국가장학금과 같은 소득·성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등 3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재원 장학금과 교내외장학금 등 2조4000억원의 대학 분담분을 통해 올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은 45%까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해 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1분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지만 1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다음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한 차례 준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출신 경찰 4명 경무관 승진

양성진·배용주·신현택·민갑룡씨 총경은 지역경찰청에서 4명 승진

양성진씨

배용주씨

신현택씨

민갑룡씨

양성진(50) 전남지방경찰청 정보과장이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으로 승진한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의 경무관 배출은 지난 2010년 당시 광산경찰서장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한 강이순 전 전북지방경찰청 차장 이후 3년 만이다.

또 광주 출신 배용주(51) 서울청 형사과장, 신현택(47)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영암 출신인 민갑룡(49)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도 경무관 승진자로 내정됐다. 또 황석헌 전남청 강력계장 등 89명은 이날 총경 승진 내정자에 올랐다.

경찰청은 9일 양 정보과장 등 총경 23명을 경무관 승진자로 내정, 발표했다. 경무관은 10만5000명이 넘는 전체 경찰의 0.04%(43석)로 최상위층을 구성하며 '경찰의 별'로 불린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양성진 전남청 정보과장이 유일하게 경무관 승진자로 내정됐다. 함평 출신인 양 과장은 광주 살레시오고와 경찰대(1기)를 졸업한 뒤 경찰에 입문해 광주 동부서장, 완도서장 등을 지냈다.

또 배 과장은 광산 출신으로 광주정광고·경찰대(2기)를 나와 보성·광산서장, 경찰청 사이버대장 등을 역임했다.

영암 출신인 민 기획조정담당관은 영암 신북고·경찰대(4기)를 졸업했고 무안, 서울 송파서장 등을 지냈다.

신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광주일고·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4기)를 통해 경찰(경정)에 입문한 뒤 진도, 광산서장, 경찰청 교육과장 등을 거쳤다.

승진자 중 과반인 14명은 경찰대 출신이고, 지역별로는 영남권에서 10명, 충청권 5명, 수도권 4명, 호남권 4명 등으로 분류돼 일각에서는 지역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또 정경채 광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과 황석헌 전남지방경찰청 강력계장 등 총 89명을 '경찰의 꽃'인 총경 승진 내정자로 발표했다.

광주경찰청에서는 정 계장과 함께 장영수 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이, 전남경찰청은 황 계장과 박종렬 생활안전계장 등 모두 4명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한편, 광주·전남 출신 경무관급 이상은 안재경 경찰대학장(장흥·치안정감)을 비롯,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화순·치안감), 전석종 전북청장(광주·〃), 윤종기 충북청장(고흥·〃), 백승호 경기청 1차장(장흥·〃), 박경민 서울청 보안부장(무안·경무관) 등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웃간 사소한 분쟁 형사조정으로 해결

검찰이 이웃 간 감정악화로 인한 분쟁이나 소액 재산다툼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형사사건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조사 당일에 조정을 시도하는 즉일조정 제도와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야간·휴일 조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조정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형사조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대신 형사사건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처벌 위주의 전통적인 형사사법정책을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형벌권 자제에 무게를 둔 '회복적 사법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 8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도입됐다. /연합뉴스

무등산국립공원 '그린포인트제' 보완대책 마련

무등산을 비롯, 전국 국립공원에서 추진중인 '국립공원 그린포인트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광주일보 1월9일 7면〉과 관련,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가 적립장소를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9일 무등산 국립공원 내 '그린포인트' 적립 장소를 증심사·원효사지구, 청풍쉼터 등 3곳에서 풍암제 탐방지원센터, 동적골 입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군왕봉 등 6곳으로 늘려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무등산 사무소는 또 광주시 등과 협의해 주차장과 오토캠핑장(야영장) 등을 마련하고 시설 사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린포인트 사용처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